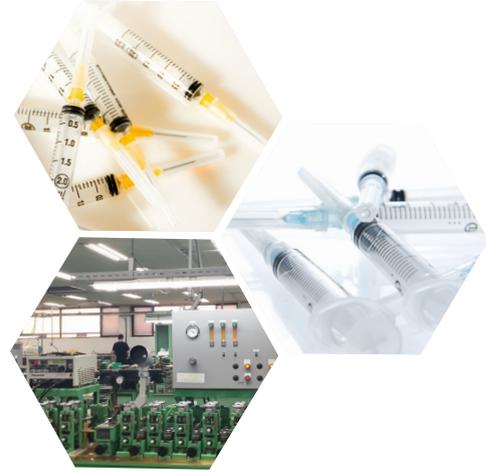


## 살펴 보기

: 현장탐방 - 주사기용 바늘 제조업체 (주)한국데미마

# 의료기술의 첫 걸음, 주사기용 바늘 제조업체 (주)한국데미마



**김아를**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다. 마스크 그리고 의료계 제품 생산 기업들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주사기용 바늘의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주사기는 피부에 바늘을 넣어 몸 안에 약물이나 수액을 직접 투여하는 것으로 먹거나 바르는 약보다는 효과가 빠르고 정확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건강진단팀, 한마음혈액원에서도 필수

의료제품 중 하나다. 건강검진 혈액검사와 헌혈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산시 압량읍에 있는 (주)한국데미마는 주사기용 바늘 전문제조기업이다. 10여 년 넘게 경북산업보건센터와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건강검진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사기 및 휴대폰 안테나, DMB 안테나 제품을 제작하다가, 몇 년 전부터 주사기 바늘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의료용 주사 파이프 중에서도 생산이 까다로운 혈관용 튜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한국데미마의 총 책임자인 이재규 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해 보았다.



(좌측부터)경북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유미연 과장, (주)한국데미마 이재규 과장

**Q** ㈜한국데지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회사는 1991년 설립해, 현재는 일회용 주사바늘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한 제품들이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소재기술과 설비제조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의료용 주사기 사업(개발) 배경과 계기가 있을까요?

**A** 회사 설립 전 병원에서 쓰던 주사기들은 재활용되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주사기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으면 B형간염, C형간염, HIV, AIDS 등 다른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현재는 주사기 재활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주사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다른 기업들과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주사기를 만들려면 우선, 얇은 스테인리스 평판을 둥글게 말아 용접해 원형 파이프를 만듭니다. 이를 잡아 늘려 파이프의 직경을 줄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드는데요. 이는 소재의 물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공정입니다. 기계설비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두어 안정적인 생산량과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Q** 이직률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적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장기근속하신 직원들이 많으시던데요. 한국데지마만의 특별한 기업문화(또는 직원복지문화)가 있으십니까?



**A** 직원들의 복지는 기업성장의 필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마다 직원 개인에게 화식비를 지급하고 10년,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속상금을 지급하고, 정년 때는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새로운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으십니까?

**A** 한류문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저희 ㈜한국데지마의 제품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정진하는 것입니다.

**Q** 경북산업보건센터와 함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산업보건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일이나, 앞으로 저희 보건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A** 매년 직원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시고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 개선을 위해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산업현장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

